

한국 다문화문학을 활용한 다문화담론의 이해와 교육의 실제

박정미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다문화문학을 활용한 수업의 실제
 - 2.1. 교수·학습의 절차
 - 2.2.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
3. 다문화담론의 이해와 수용
 - 3.1. 연구의 절차 및 내용
 - 3.2. 연구의 결과
4. 결론 및 시사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문학을 활용한 다문화사회교육에서 문학 속에 투영된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을 학습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지 그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사회와 문학’ 수업의 실재를 보이고, 학습자의 최종 결과물인 분석에세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다문화문학은 시, 소설, 영상문학 등 총 30편이며, 8개의 한국 다문화담론 주제에 대해 학생 5명의 분석에세이, 총 33편을 수집하였다. 분석에세이는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귀납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각 주제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문학의 교육적 기능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범교과적 차원에서 학습

자의 문학경험이 다문화사회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 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에 다문화문학, 다문화담론, 교육의 실제, 분석에세이, 다중사례연구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문학을 활용한 다문화사회교육에서 각 문학 속에 구현된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¹⁾을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A대학교의 '다문화사회와 문학'²⁾교과목을 한 학기 동안 운영하였고 최종 결과물로 학생들의 분석에세이, 총 33편을 수집하였다. 해당 교과목이 문학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지만 문학 작품 자체를 교육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문학을 통한 다문화사회교육에서 해당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교수·학습³⁾의 과정은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수·학습의 과정이 다문화사회교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학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 문학토의와 에세이적 글쓰기를 적용하였다.

한국문학에서 다문화문학이 주목받은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전영주 2018: 230). 다문화문학은 한국 다문화사회 현상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

- 1)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담론은 다문화문학 속에 투영된 한국 다문화사회와 인간의 삶 속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의미한다.
- 2) 본 강좌는 2023년 1학기(2023.3.6~6.20)에 운영되었다. 수강생은 총 6명, 모두 4학년이다. 학생 중 결과물을 제출한 학생은 5명이며, 총 8개의 탐구 주제에 대해 모든 결과물을 제출한 학생은 2명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분석에세이 총 33편이 수집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를 대상으로 한다.
- 3)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학습자의 '감상(感想)'과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서 학습자가 느낀 감상을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확인하고 구체화 하는 의도적인 단계 또한 설정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교수·학습의 과정에 접근하되, 본 연구는 문학교육의 본질적 측면보다는 다문화사회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이해와 수용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다문화문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다문화 구성원의 삶과 현실 문제를 고발적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국문학에서 다문화문학의 정의와 범위 등 장르적 개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문화문학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⁴⁾를 보이고 있는데, 일찍이 다문화문학에 관심을 둔 서구의 경우 다문화문학이란 ‘다문화사회를 다루는 문학, 다른 문화권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 문학(임경순 2011: 395, Mingshui Cai 2002: 6)’을 의미한다. 다문화문학이 다문화사회를 투영하는 문학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교육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문화문학이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용된 다문화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범문화적⁵⁾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문학 연구에서는 다문화문학을 독립된 하나의 장르로서 개념 정의하거나 분석하기보다는 시나 소설 등 한국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담고 있는 문학 작품 속 서사 구조나 서사 유형 등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다(강진구·이기성 2018). 특히 서구의 다문화문학과 비교하여 다문화문학을 개념 정의한 논의는 양승주(2010), 임경순(2011)이 대표적이다. 먼저 임경순(2011: 390)은 다문화문학이 비주류 소수 인종뿐만 아니라 성, 계급 등에서 비주류 집단이나 인물, 문화를 다룬 문학이라고 하였고, 양승주(2010: 195)는 다양한 문화를 다루면서도 전형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인종적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장르라고 하였다. 두 연구 모두 다문화문학의 교육적 활용도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시와 해법 등이 다문화문학에 투영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다문화문학을 개념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언어, 인종, 문화 등으로 구별하는 문제를 양산한다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다문화라는 용어의 다의성과 용어 사용 범위의 개연성 등에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문화문학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5) 하지만 다문화문학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문학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다중(multi)에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의 다문화문학은 ‘인종에 의한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것들’이라는 정의에서부터 ‘모든 문학은 다문화적’이라는 정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임경순 2011: 396).

일반적으로 다문화문학은 ‘이질적인 여러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현상들을 소재로 하는 문학(국립국어원 2023.6.22)’을 말한다. 여기에서 ‘이질적인 여러 문화적 배경’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다문화 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정책적 용어로 사용되는 경유 가 많아 그 의미가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은데 송희복(2010)의 논의에서 그러한 시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다문화 문학을 ‘삶의 경험적인 다층성과 다원성, 그리고 전통, 언어, 역사에 의 해 조명되는 구체적인 문화의 상황들을 그려내려고 하는 문학’이라고 정 의하고, 문학의 간문화성을 강조하였다(앞의 논문, pp. 313-314). 또 다문화문학은 인간 본연의 존재와 가치를 기저에 두고 ‘사이에 놓인 상 태 또는 성질의 간성(間性)을 지향하는 문학(앞 논문, p. 331)’이 되어야 함을 주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문화문학은 ‘다양한 인간의 존재와 그 삶 을 보여주며 상호문화 간 이해와 소통을 포함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논의에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수성이라는 이해를 더해 다문화문학을 ‘시공간적으로 한국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문 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가 다문화 문학 속 한국사회 다문화담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⁶⁾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문학을 활용한 수업의 실재를 통해 다문화문학 속 다문화담론이 학습자에게 노출되는 과정과 교수·학습의 절차를 살펴본 다. 이를 통해 다문화문학의 교육적 기능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법교과적 차원에서 학습자의 문학경험이 다문화사회교육에 미치는 영향 을 탐구할 수 있다. 둘째,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의 최종

6) 하지만 한국 다문화사회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다문화문학의 교육적 기능 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문학에 대한 장르적 개념과 특성, 범 위 등에 대한 학술적 논의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탐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다 문화문학을 하나의 분리된 범주로 이해하고자 한다.

결과물인 학습자의 분석에세이와 사후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다문화문학 속에 재현된 한국 다문화사회의 제 양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2. 다문화문학을 활용한 수업의 실제

2.1. 교수·학습의 절차⁷⁾

다문화문학은 한국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문학이다(윤여탁 2010: 9).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 속에 재현된 다문화담론을 통해 현실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문학적·문화적 행위는 학습자의 공동체적 인성과 실천을 위해 교육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며, A대학교, ‘다문화사회와 문학’ 수업의 실제⁸⁾를 통해 학습자의 다문화담론 이해와 수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교수·학습의 절차와 내용을 보이고자 하며, 먼저 수업의 목표⁹⁾ 및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밝힌다.

(1)과목명: 다문화사회와 문학

(2)수업 기간 및 시간: 2023년 1학기(3.6~6.20/ 주 3회, 회당 50분)

(3)수업 대상: 4학년 학생, 총 5명¹⁰⁾

7) 교수·학습의 절차는 실제 수업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절차와는 다르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 3장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8) 수업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해당 수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중략) 본 강좌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 속에 투영된 인간 본연의 삶과 사회문제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 탐구 문제를 추출하고, 대표적인 문학 작품에 나타난 문제 인식과 해결 과정을 탐색한다.

9) 본 내용은 실제 강의계획서의 내용에서 일부 발췌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상세한 주차별 내용은 학습자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폭적으로 수정되었다.

10) 실제 수강 인원은 6명이지만, 기본 출석 일수 미달 및 분석에세이 제출 누락 등의 이

(4)수업 목표:

- ①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올바른 지식을 갖춘다.
- ② 문학 작품 속에서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 ③ 비평적, 비판적 시각을 갖추고 이를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한다.

본 수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교수·학습의 절차는 크게 교수·학습의 전 단계-교수·학습 단계-교수·학습 후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교수·학습 전 단계에서는 학습자 대상 사전설문 조사를 통해 학습자 배경지식과 경험, 그리고 문학경험 등을 알아보았다. 조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학습자의 견해와 학습 경험 등 배경지식에 대한 질문 3문항, 문학 경험을 알아보는 질문 1문항, 다문화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 및 매체, 매체의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2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전 설문조사는 첫 수업시간(2023.3.7.화)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문학의 장르 및 매체, 장르별 편수 등을 결정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먼저 5명의 학습자들¹¹⁾은 모두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¹²⁾을 최소 2과목 이상, 최대 6과목까지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 경험과 관련해서는 학습자 대부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을 읽어보았다는 학생은 총 2명이었으며, 2명 모두 김려령 작가의 소설 『완득이』를 읽었다고 답했다. 다문화 관련 소식을 접하는 주요 매체는 인터넷이나 SNS, 뉴스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학생 1명은 가족 중 한 분이 국제결혼을 했기 때문에 직접 소식을 듣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모두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라고 답하였고, 가족 중 외국인이 있는

유료 최종 1명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1) 한국어문화학부 4명, 중국어 전공 1명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로 한국어문화학부는 한국어교육, 언어문화, 다문화교육(다문화사회전문가 과정) 등 3개의 전공 트랙으로 운영된다.

12) 주요 과목은 국제이주와 노동정책(4명),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3명), 해외동포사회의 이해(3명) 등이다.

한 명의 학생을 제외한 4명의 학생들 모두 다문화 혹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구체적인 문제의식¹³⁾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교수·학습 단계에서는 교수자의 강의를 통해 한국 다문화사회 현상 및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 다문화사회 관련 탐구 주제 및 대상을 선정하였다. 시, 소설, 영상문학 등 총 3개의 문학 장르¹⁴⁾에서 총 8개의 탐구 주제를 선별하였으며,¹⁵⁾ 이 주제 선별 시 학생들의 사전설문 조사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학생들이 이해하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은 바로 인적(人的) 구성에 있었고,¹⁶⁾ 이 점을 토대로 각 문학 속 주요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 주요 환경 등을 중심으로 한국 다문화사회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최종 탐구 내용으로 구성하였다.¹⁷⁾

교수·학습의 주요 과정은 문학 작품의 ‘감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해당 문학 작품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거나 전문 비평가의 관점이나 생각을 명시적인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본 수업이 문학 수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지만 문학 작품 자체를 교육하는 시간은 아니며 학습자 또한 ‘이상적인 독자(최미숙 2006: 2)’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본 수업의 목적은 문학 작품에 관한 것을 교수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

13) 즉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다문화는 ‘남의 문제’이지 ‘나 혹은 가까운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14) 실제 수업에서는 세계문학(세계SF문학상 수상작, 켄 리우, 단편소설 「종이 동물원」, 2018)도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 다문화사회를 다룬 다문화문학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15)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중국 동포(조선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과 관련된 8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주제 및 문학 작품은 다음 2.2.에서 다루도록 한다.

16) 5명의 학생 모두가 한국이 다문화사회인 이유로 ‘결혼이주민,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라고 적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다양성은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17) 이와 같은 토픽 선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 및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심사자의 지적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교수·학습의 ‘실제’라는 측면에서 교수자가 탐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탐구)가능성과 요구도’이며, 이는 사전설문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들 스스로 문학 속 다양한 인물과 사건 등을 통해 자신이 느낀 부분을 구체화 하고 그 과정을 통해 탐구 문제를 자기화하고 내면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화 과정을 위해 문학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 ‘문학 토의’와 ‘분석에세이’를 적용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 교수·학습의 방법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후 단계에서는 분석에세이 내용을 토대로 8개의 탐구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총평의 시간을 가졌으며,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한 학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및 자기평가¹⁸⁾ 시간을 가짐으로써 본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교수·학습의 절차 및 내용

2.2.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

본 절에서는 교수·학습의 단계에서 다문화문학 작품을 구체적으로 감상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감상 전 단계-감상 단계-감상 후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수업이 문학

18) 사후 설문조사는 학습자가 탐구 문제에 대한 최종 의견을 스스로 정리하는 자기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실제 학생들의 성적 평가는 출석(20%) 등을 포함해 학교 규정에 근거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작품에 대한 수업은 아니지만 한국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해당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교수·학습의 과정이며, 이때 이 과정은 문학교육의 측면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 문학토의와 분석에세이 쓰기를 적용하여 학습자의 이해와 느낌을 구체화 하는 감상의 과정이 곧 교수·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2.1. 교수·학습의 내용

본 절에서는 교수·학습의 내용 측면, 즉 수업에 활용된 다문화문학 장르와 문학 작품을 살펴본다. 작품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학습자의 문학 경험과 소통 매체였다. 왜냐하면 본 수업은 문학 감상을 통해 문학 속 다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비평적 시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교수·학습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문학적 소양과 감상능력 등 문학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독서 능력에 따라 작품의 수나 장르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수·학습 전 단계에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는 학습자 이해를 위한 문학 장르와 작품 선정 시 주요하게 참조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와 문학 경험, 주요 매체 경험 등¹⁹⁾을 토대로 총 3개의 문학 장르에서 탐구 주제 및 대상을 선정하였다. 수업에 활용된 다문화문학 작품은 시 23편, 소설 2편, 단편영화 1편, 장편영화 4편²⁰⁾으로 총 30편이다. 구체적인 문학 작품과 탐구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19) 2.1.의 사전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참조

20) 장편영화 작품을 선정할 때 학습자 감상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최대 110분을 넘지 않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장편의 경우는 2시간 연강 시간을 활용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동의하에 쉬는 시간 없이 이어보기를 하였다. 학생들도 이어보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표 1〉 다문화문학 작품 및 탐구 내용

탐구 대상 및 주제	문학 작품(작품명 및 저자, 출전 등)	장르
결혼이민자 · 외국인근로자 · 한국 다문화사회	시인 하중오, 총 23편 『반대쪽 천국(2004)』, 「코시안 가족 1~5」, 「삼촌은 버리고 오고 조카는 데리고 오고」, 「코리안 드림1~5」, 총 11편 『국경 없는 공장(2007)』, 「동승」, 「대물림」, 총 2편 『아시아계 한국인(2007)』, 「원어」, 「부조」, 「전후」, 「팔등신」, 「전후」, 「코시안리 1~46」, 총 6편 『입국자들(2009)』,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연인」, 「장애」, 총 3편 『제국(諸國 또는 帝國)(2011)』, 「한국의 공장」, 총 1편	시
중국 동포	공선옥, 『유랑가족(2014)』, 「가리봉 연가」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 ²¹⁾	김재영, 2005, 『코끼리』, 실천문학사 출전	소설
일상적 편견과 차별	박찬욱 감독, 2003,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단편영화, 27분, 〈여섯 개의 시선: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이한 감독, 2011, 「완득이」, 107분	
다문화가정	방수인 감독, 2018, 「턱구」, 91분	영상
북한이탈주민	윤재호 감독, 2021, 「파이터」, 104분, 2020년 부산 국제영화제 넷팩상(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올해의 배우상 수상 외 박동훈 감독, 2022,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117분, 2022년 청룡영화제 신인남우상 수상 외	문학

다문화문학 장르 및 문학작품 선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강의 전체 일정 및 소요시간 배분 등 물리적인 환경이며, 다음으로 학습자가 감상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서에 대한 부담감²²⁾이나 관심, 이

21)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 및 그로 인해 양산되는 제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2) 학습자마다 작품 길이, 독서 시간, 집중도, 이해도, 정서적·심리적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변인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해도 등을 염두에 두었다. 그래서 ‘시’- ‘(단편)소설’- ‘영상문학’의 순서로 다문화문학 장르를 배치하였고, 각 문학 장르마다 매체의 특성에 따라 감상 전·후 단계의 활동²³⁾을 달리하였다.

예를 들면, 시를 감상할 때는 낭독 및 운독을 반복하면서 시에 접근하고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소설의 경우는 감상 전 단계에서 등장인물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관련 다큐멘터리, 뉴스 등 동영상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문화적 이해와 배경지식을 확장하였다. 영상문학의 경우는 매체²⁴⁾를 달리하며 상호텍스트적 동위소²⁵⁾를 찾아보다거나 관련 기관의 정책 자료 등을 살펴봄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학작품 선정은 윤여탁(2010)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²⁶⁾ 특히 문학작품 중 서사문학은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내러티브(Narrative)로 보여주기 때문에 다문화사회교육의 제재로서 매우 효과적이다(권혁준 2017: 13). 또 내러티브에 대한 경험은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유효한 작용을 한다(박인기 2020: 15-16). 따라서 다문화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서사문학을 주요하게 배치하였으며, 사전 설문 결과를 토대로 영상문학²⁷⁾을 문학텍스

23) 2.1.의 <그림 1> 참조

24) 영화 완독이는 김려령 소설을 영화화 한 것이다. 소설 속 인물과 영화 속 인물의 특징을 비교해보면서 등장인물과 주변인물과의 관계, 사건 등을 보다 구체화 하거나 심화할 수도 있다.

25) ‘상호텍스트적 동위소’는 여러 텍스트에서 반복되거나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심층적인 의미에서는 동일한 범주를 드러내는 요소를 말한다(나선혜 2022: 284).

26) 윤여탁(2010: 6~8)은 한국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담고 있는 한국문학작품과 대중문화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크게 소설, 시, 청소년문학, 영화, 애니메이션, 연극 등에 따라 대표적인 작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27) 영상문학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학텍스트에서만 문학성과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다문화사회 담론’을 잘 반영하고 있는 내러티브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무엇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학습자의 특징에 따라 보다 생동감 있고 실제적인 경험을 위해 영상문학을 다수 가져왔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내 일상생활 등은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표면적 이해에 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영상문학이 문학텍스트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교수·학습의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보다 더 많이 반영하였다. 매체적인 특성상 영상문학은 문학적·영화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3의 문학으로 문학과 예술성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교육적 가치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별 주요 탐구 주제는 한국사회의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양산되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토픽1: 시에 형상화 된 **결혼이주민**의 모습을 살펴본 후, 우리 사회가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토픽2: 시에 형상화 된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살펴본 후, 우리 사회가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토픽3: 시에 나타난 **한국 다문화사회**를 살펴본 후, 우리 사회가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토픽4: 소설(가리봉연가)에 나타난 **중국 동포(조선족)**의 모습을 살펴본 후, 우리 사회가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토픽5: 소설(코끼리)에 나타난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을 살펴본 후, 현재 우리 사회가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토픽6: 영화(민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완득이) 속 사건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토픽7: 영화(덕구) 속에 나타난 **다문화가정과 아시안(Asian)을 향한 인종차별적 행동과 편견**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문화가정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써봅시다.

토픽8: 영화(파이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속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내 적응 과정과 현실적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내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써 봅시다.

토픽1~8에 대한 학습자의 분석에세이 내용은 다음 3장,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2.2. 교수·학습의 방법

본 절에서는 교수·학습의 방법을 살펴본다. 본 수업은 문학 작품을 교육하는 것이 주된 목표는 아니지만 문학 작품의 이해, 즉 감상의 측면에서 보면 문학교육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앞서 주지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문학토의’와 ‘글쓰기’²⁸⁾를 교육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문학토의’는 학습자 간, 교수자와 학습자 간, 작품과 학습자 간 등 문학을 통한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 것이며, ‘글쓰기’는 추상적인 학습자 이해를 자기화 하고 구체적 결과로 표면화하기 위함이다.

가. 문학토의

문학토의(Literary Discussion)²⁹⁾는 문학교육을 위한 교실 수업에서 주로 문학작품에 대한 학생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의미한다. 문학토의를 통해 문학 작품을 폭 넓게 이해하고 문학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및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문학토의의 대화성에 주목하였다. Bakhtin의 대화주의에 근거한 ‘대화’는 기본적으로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창조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정우향 2011). 문학교육의 측면에서도 ‘대화’는 시 교육(최미숙 2006), 대화적 문식성(정혜승 2012), 문학토론(이인화 2013), 문학토의(남지현 2016)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대화’는 본질적으로 ‘학습자 간 차이를 전제로 이루어

28) 하지만 글쓰기 교육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글쓰기를 위한 사전 지식, 글쓰기 전략 등의 내용은 논외로 한다.

29) 남지현(2016)은 Discussion이라는 영어 사용에서 문학토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인화(2013)는 논거를 보다 구체화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쟁적인 토론의 특성을 포함하는 문학토론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지현(2016)의 논의에 따라 논쟁적인 측면보다는 대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토의’의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지는 상호작용 및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학토의'를 '문학텍스트 이해를 위한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소통'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문학토의의 과정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문학텍스트의 가치, 소위 문학성이나 예술성 등을 결정하거나 결론짓는 과정이 아니다. 문학 속에 재현된 '한국 다문화사회 담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서의 문학토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명의 학습자들이 문학텍스트를 감상하고 작품 속 인물의 성격, 인물 간 관계, 사건, 배경 등 전체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견해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교수·학습 단계에서의 문학토의는 문학 장르에 따라 토의 내용의 방향이 조금씩 달랐는데, 시의 경우는 주로 시의 상징 의미나 작가의 의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소설을 감상할 때는 주요 인물의 성격, 특성, 인물 간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특히 김재영 작가의 『코끼리』를 감상할 때는 힌두교와 코끼리의 상징성에 대해 사전에 교육을 하였다. 영상문학의 경우는 사건의 배경이나 주요 등장인물의 감정 등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때 유의할 점은 교수자가 평가를 위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고 결론을 짓는 방식의 답변은 삼가야 한다는 점이다. 토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정해진 답이나 결론이 없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격려해야 한다. 하지만 텍스트-문장, 영상이미지 등-에 대한 해석에서 사건의 선조적인 경위나 명확한 사실 관계에서의 오독(誤讀)은 좀 더 타당한 해석으로 유도하거나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해 줄 필요는 있다.

문학토의는 학습자 간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이며, 한편은 학습자 간 다양한 이해와 차이를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재발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으로 내면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토의는 문제 탐구의 과정이기도 하다. 학습자는 문학토의의 과정을 통해 작품 속 다문화담론을 보다 비평적·비판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음 분석에세이 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 할 수 있다.

나. 분석에세이

글쓰기는 ‘실체가 확실한 콘텐츠의 위상을 지니며, 그 콘텐츠를 매개하는(communicate) 미디어의 자질(박인기 2014: 11)’을 가지고 있다. 글쓰기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박인기(2014)는 글쓰기의 보편적 미래 가치가 ‘①인간의 조화로운 발달, ②인류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발달, ③개인과 사회를 막론한 소통의 생성과 강화’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글쓰기는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그 소통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글쓰기가 학습자의 다문화담론 이해에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며, 글쓰기 중 분석적 글쓰기인 분석에세이(Analytical Essay) 쓰기에 주목하였다.

특히 에세이는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 글쓴이의 개성이나 생각 등이 잘 드러난다는 점, 일상생활에서의 체험이나 감정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수업 및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 다문화담론의 분석³⁰⁾을 위해 비평적 시각을 요하는 분석적 에세이 쓰기의 ‘과정’은 학습자 이해와 수용을 자기화 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다문화문학 작품마다 탐구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학습자가 분석에세이를 쓰도록 하였다. 이때 분석에세이 분량³¹⁾은 1매 이내로 제한하였다. 최종적으로 취합한 분석에세이는 총 33편이며, 자세한 내용은 3.2.에서 살펴본다.

30) 일반적으로 분석(分析)은 어떤 문제와 관련된 원인을 파악하여 결과를 예측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거나, 어떤 대상의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방법이다. 따라서 분석에세이 쓰기는 다문화문학 속 다문화담론을 이해하고 문제를 탐구하는 데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1) 분량을 제한한 이유는 학습자가 탐구 주제를 초점화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제출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였는데, 온라인 제출의 경우는 글자크기 10pt, 글 간격 160%, 1매 이내로 제한하였고, 현장 글쓰기의 경우는 학습자마다 글자 크기나 배열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여분의 종이 한 장을 더 주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 글쓰기 시간은 1차시 수업(50분) 이내로 제한하였다.

3. 다문화담론의 이해와 수용

본 연구는 다문화문학 속의 다문화담론을 학생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교수·학습 과정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2장, 교육의 실제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따라서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 연구 대상, 즉 학습자의 분석에세이와 사후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 분석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연구의 절차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사례연구방법³²⁾을 활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문제의 본질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Robert K. Yin, 2014, 신경식 외 역 2016: 31-35). 즉 연구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연구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왜’의 문제를 다루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분석에세이에 나타난 학습자의 다문화담론의 이해와 수용의 내용’이며, 다문화문학의 교육적 효용을 전제하는 가운데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로 각각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의 ‘개별적 이해’는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개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로 ‘사례’의 특징³³⁾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시공간적인 물리적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미리 정해진 연구 절차 및 과정에 따라

32) 사례연구는 개인, 집단, 조직, 사회, 정치, 그리고 관련된 여러 현상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보편적인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현실 세계의 사건들을 ‘사례’라는 것을 통해 전체적이고 의미 있는 특징들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obert K. Yin, 2014, 신경식 외 역 2016: 23). 본 연구는 Robert K. Yin의 사례연구방법을 토대로 하였다.

33) 사례연구에서 사례는 ‘현실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현상’이어야 한다. Robert K. Yin은 사례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였는데, 연구문제의 유형, 연구자의 통제 여부, 현재의 사건을 다루는지의 여부 등이다(Robert K. Yin, 2014, 신경식 외 역 2016).

실증적으로 사례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사례연구의 범위 및 사례 정의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 및 내용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의 절차

먼저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그 연구문제의 유형과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연구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문화문학 속에 투영된 다문화담론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수용의 내용’이다. 연구문제의 유형이 현재의 구체적 문제(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학습자의 개별적 이해를 다룬다는 점, 학습자의 개인적 이해를 다루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과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사례연구방법³⁴⁾을 선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3개의 다문화문학 장르에서 8개 주제별 분석에세이 자료를 수집하였고, 에세이별로 하나의 공통된 탐구주제를 분석하였다.

34) 사례연구는 크게 단일사례연구와 다중사례연구로 나뉜다. 그리고 분석하고자 하는 단위에 따라 단일 분석단위와 복합 분석단위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일사례연구가 하나 이상의 분석단위를 포함한다면 이것은 단일사례연구 유형 중 복합 분석단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병원 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서비스 혹은 직원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 병원 한 곳이라는 점에서 단일사례연구에 해당하며 하위의 분석 단위가 2개 이상이면 복합 분석단위 유형이라고 한다(Robert K. Yin, 2014, 신경식 외 역 2016: 101-133).

따라서 수집·분석하고자 하는 사례자료가 다문화문학 장르에 따라 각기 다른 탐구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중사례연구의 유형에 속하며, 각각의 연구사례는 공통된 하나의 주제에 대한 학습자 이해와 내용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단일 분석단위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자료 수집’의 단계에서는 사례연구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례연구에 사용되는 결과물, 즉 분석에세이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의 과정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강의계획과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연구자의 편향된 통제나 사고가 개입되지 않도록 자료 수집 기한 및 종류, 수집 방법에서 명확한 경계³⁵⁾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시와 소설의 내용을 분석한 에세이 3편과 2편, 총 5편은 학습자가 각자 정해진 기한 내에 이클래스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그 외 영상문학의 경우는 감상의 단계가 끝나고 나면 다음 차시 수업시간(50분 기준)에 직접 글쓰기를 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³⁶⁾ 마지막으로 사후 설문조사(2023.6.13)는 종강 수업에서 학습자가 현장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후 설문조사는 학습자 스스로 본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다시 환기하고 한 학기 동안의 교수·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다문화문학의 교육적 효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통합적 결과를 뒷받침하는 사례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분석 및 결론’ 단계에서는 주제별 분석에세이 내용을 분류하고 분석 전략을 세운 후 주제별 결과 및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귀납적³⁷⁾인 심층적 자료 분석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사례연구

35) 사례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사례연구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사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Robert K. Yin, 2014, 신경식 외 역 2016: 75-77).

36) 자료 수집 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현실적인 학습자의 참여도를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업로드 방식의 경우 분석에세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학생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교수·학습의 과정 중 문학 감상의 단계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영상문학의 경우는 일회성, 즉각성, 실제성 등 영상 매체의 특징으로 교실 현장에서 학습자가 느낀 바를 바로 이야기하고 감상을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37) 귀납적 분석 전략은 결과물을 설명하거나 주요 명제를 검증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장

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전략은 연구 목적과 자료 분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중요하다. 귀납적 분석 전략 중 하나인 ‘심층적 자료 분석’은 사례자료 자체를 중시하고 그 자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료를 ‘심층적(ground up, Robert K. Yin, 2014, 신경식 외 역 2016: 246-248)’으로 반복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탐구주제별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통합적 결과를 도출한 다음 총평하였다.³⁸⁾

3.2. 연구의 결과

3.2.1. 사례자료의 현황 및 내용

본 절에서는 학습자 5명의 분석에세이 사례 33편과 사후 설문조사³⁹⁾ 결과를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사례로 분석한 최종 자료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사례 분석자료 현황

학생 ⁴⁰⁾	분석에세이 제출								사후 설문	합계
	문학 장르									
	시			소설		영상문학				
	토픽1	토픽2	토픽3	토픽4	토픽5	토픽6	토픽7	토픽8		
가	○	○	○	○	○	○	○	○	○	9
나	○	○	○	×	×	○	○	○	○	7
다	×	×	×	○	×	○	○	○	○	5
라	○	○	○	○	○	○	○	○	○	9
마	○	○	○	○	×	○	○	○	○	8
합계	4	4	4	4	2	5	5	5	5	38

점이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다문화담론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그 내용을 살펴 보기 위한 것으로 귀납적 방식이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8) 학습자 개별적 이해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학습자 전체의 의견을 통합 정리하였으며, 분석에세이 관련 총평은 마지막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도 공유하였다.

39)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3.6.13.(화)에 실시되었다. 총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다문화문학의 교육적 효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4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 다루도록 한다.

학습자 정보를 대략 정리하면, 4명은 한국어교육 혹은 다문화교육 등 관련 전공자⁴¹⁾였으며 1명은 외국어(중국어)를 전공하는 비전공자였다. 모두 4학년으로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며, 사전 설문조사⁴²⁾를 통해 학습자 모두 다문화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학생들 대부분 문학경험⁴³⁾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2.2. 토픽별 분석 결과

사례분석 결과⁴⁴⁾는 8개의 토픽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하며, 사후 설문 결과는 다문화문학을 활용한 교수·학습의 의의와 교육적 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참고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토픽1: 결혼이주민

토픽1은 하종오 시에 형상화 된 결혼이주민의 모습을 관찰하고 문제점을 찾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시에 투영된 결혼이주민의 모습은 주로 농촌 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그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은 가정폭력 및 언어폭력 문제, 외모 차이에서 비롯된 차별과 편견 문제, 한국어 소통 문제 등이다.

40) 학생명은 임의로 가~마로 표기한다. 자료명은 탐구 주제 번호를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시) 가-토픽1: 가 학생의 토픽1에 대한 분석에세이 사례

41) 수업에 참여한 한국어문화학부 학생의 세부 전공은 한국어교육 1명, 다문화교육 1명,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교육 복수전공자 2명이었다.

42) 5명의 학습자 모두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43) 특히 영상문학을 통해 다문화를 접한 학생은 전무했다. 다문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선택해서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경험한 경우도 없었다. 다문화사회와 교육에서 매체의 역할을 고려할 때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가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44) 학생들의 글은 문법적 오류 및 문장 등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다. 또한 학생 자료 사용에 대한 내용은 총평 시간과 사후 설문조사 시 구두로 사전 동의를 구하였으며, 이후 논문 작성의 과정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재차 확인하였음을 밝혀둔다.

가-토픽1: 시 '코시안 가족 5'의 '새벽에 늙은 남편에게 맞은 가슴팍이 아팠다' 구절에서 결혼이주여성이 폭력에 노출된 일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토픽1: 코시안 가족 4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 네팔 남편이 아이의 돌잔치를 하며 아이의 외모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아이의 예쁜 모습이 한국인 아내, 자신들의 딸을 닮아서 예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하략>

라-토픽1: 코시안 가족 5에서 '강간하지 말아요!', '부부 관계 안 하려면 결혼 왜 했냐!' 등 결혼이주여성을 돈을 주고 사온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하략>

이상의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이민자 대상 생활교육, 다문화가정 대상 상호문화 이해 교육 등을 언급하였다. 특히 결혼이주민의 체류 연장 문제에 대해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의견도 있었다.

가-토픽1: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결혼이주민이 체류 연장 문제로 인해서 배우자한테 부부관계를 강제로 요구받거나 소유물로 생각되어 맞거나 자유를 억압을 받기도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체류를 연장하려면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와 신청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민들의 체류 연장 종속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비자 문제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자 조건을 변경하면 변경된 사항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에 사는 많은 수의 결혼이주민들이 폭력과 자유가 억압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 토픽2: 이주노동자

토픽2는 하종오 시에 형상화 된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었다.

시에 투영된 이주노동자의 모습에서 찾은 문제점은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불법 체류, 임금 체불, 고용주 횡포 등이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토픽2: '장애'라는 시에서 이주노동자의 암울한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이주노동자들도 있겠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 제대로 된 숙식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하락>

라-토픽2: '무언가 잡으려는 아기의 손에 허공이 잡아뜯겼다'라는 부분에서 외국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어린아이의 미래가 보이지 않음을 암시하였다.

마-토픽2: '엄지와 약지만 남은 오른손으로<하락>'의 내용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거나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약점으로 잡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한국인의 인식 개선,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교육 확대,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 문제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고용주 평가와 불법 체류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의견도 보였다.

가-토픽2: 한국 사회가 지닌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고용주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중략> 한국인 고용주에게 도입할 평가제는 위에서 이야기한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지켜야 할 요소들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평가하고 평가 결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고용주들에게 부정적 조치를 취한다. 고용주들은 부정적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고용주 평가를 통해서 어떤 고용주가 좋은 고용주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통한 고용주 평가제는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⁴⁵⁾

마-토픽2: 법과 관련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한국에 오고 한국은 3D업종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서로가 상리공생 같은 관계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취업교육과 사용자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45) 고용주 평가제의 현실적 적용에 대한 어려움 등 학생 의견에 대한 피드백은 총평의 수업 시간에 이루어졌다. 피드백의 다른 예로는 영화 파이터에서 여자 주인공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사전에 필요한 지식과 교육을 받은 사람, 업체에 한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추가 설명하기도 했다.

다. 토픽3: 한국 다문화사회

토픽3은 하중오 시에 형상화 된 한국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학습자들은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 등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사회적 인식과 역사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무관심에서 오는 이해 부족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가-토픽3: 시 '아버가 떠난 곳 딸이 돌아온 곳'의 '아버가 젊어서 떠났던 곳에 딸이 늙어서 돌아오니 조선족이라고 했다 늙은 딸이 돌아온 곳에 따라온 젊은 외손녀도 조선족이라고 했다' 구절에서 정체성에 대해 표현되고 있다. 강제이주를 강요받은 아버지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되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아버지의 늙은 딸과 젊은 외손녀는 한국인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타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략>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족이나 고려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방문취업 비자(H2 비자)를 통하여 한국에 경제적 활동을 하러 오거나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이 부모와 동일하게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인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외국인들과 동일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여러 세대를 거쳐 오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역사적 배경 이해 부족 또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마-토픽3: 코시안 가족 1, 4에서 “외탁하지 않아 귀여워하는 게 틀림없다”, “친탁했는지 외탁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기뻐지만”이라는 구절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외형적으로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유독 피부가 어두운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 데, 그 이유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다. 이러한 인종차별이 생기는 이유는 다문화교육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다문화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을 들었으며, 전문가 자격 강화, 다문화교육의 대상 및 방법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례도 보였다.

마-토픽3: 다문화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다문화 교육에 한국 다문화사회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면 다문화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토픽3: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중매체라 생각한다. 뉴스에서 가끔 방송되는 외국인의 범죄 사실 등으로 인해 한국 사람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사실 현재 뉴스나 신문을 보면 외국인에 대해 좋은 기사보다는 나쁜 기사, 범죄, 혐오에 대한 기사가 훨씬 많다. 분명 한국에서 좋은 업적을 남기고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외국인이 많을 텐데 기사를 보면 대부분 외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만들어 준다. 나는 이런 대중매체의 보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략> 다문화전문가 자격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아봐 줄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은 거의 사회복지사가 이 일을 대체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 토픽4: 중국 동포

토픽4는 공선옥 작가의 단편소설, 『가리봉 연가』에 형상화 된 중국 동포의 모습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결혼이주, 가출, 불법 체류, 폭력 및 범죄 문제, 특정 지역의 게토화로 인한 한국인과의 단절 혹은 고립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가-토픽4: 소설 속 ‘가리봉동’과 같이 중국 동포(조선족)들이 밀집하여 그 지역 안에서 그들의 문화 위주로 생활하여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게토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의 대림동, 가리봉동 등이 있다. 같은 동포끼리 모여 살다 보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는 입장에서는 정착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우선시하여 자신들의 문화 위주로 생활한다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많은 중국 동포가 한 지역에 모여서 살게 되면 그 지역은 어쩔 수 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다.

나-토픽4: 한국인 남편은 가난했다. 명화는 위장 결혼을 했지만 남편 기석은 일종의 사기 결혼을 한 셈이다. 결국 견디지 못한 명화는 야반도주를 하지만 남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간신히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의 돈을 빼앗겠다고 누군가는 칼을 찌르고 도망을 간 것이다. ‘가

리봉 연가'의 슬픈 노래처럼 서글픈 인생이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국제결혼제도의 정비, 중국 동포와 특정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한 계도화 방지 등을 제시하였다.

마-토픽4: 최근에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본적인 경제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외국인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결혼을 했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기 결혼의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좀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주거환경부분에서 초청인 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임차한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초청인 본인명의로 소유한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토픽4: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인들이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방문하여 지역을 실제로 느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역을 한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선 대중매체에서 해당 지역의 실제 모습을 노출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계속 노출하여 그들의 공간, 문화들에 대해 접한다면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중국 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한 관심은 중국 동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도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토픽5: 외국인근로자

토픽5는 김재영 작가의 단편소설, 『코끼리』에 형상화 된 외국인노동자의 모습, 특히 불법 체류의 문제 등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 및 생활환경, 불법 체류자 문제 등이다.

가-토픽5: 외국인근로자들이 힌두교의 코끼리처럼 한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그들의 처우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략>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것을 ‘러시안롤렛’과 같이 자신의 순서가 당연히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중략> 손가락이 잘려도 치료 받지 못하고 <하략>

라-토픽5: 코끼리 소설 속 주인공인 아키스는 아버지와 함께 네팔에서 건너와 십여년 전까지 돼지 축사로 쓰인 건물에 살고 있었다. <중략> 쿤의 손가락을 묻기 전에 다섯 개의 손가락을 더 묻었는데 <하략>

이상의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불법체류자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가-토픽5: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은 즉시 강제 출국이 되는데 강제 출국이 아닌 합법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불법체류라는 잘못을 하였지만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였는지 범죄적으로 악용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피해를 주었는지를 판단하여 한국사회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략> 점점 더 많은 수의 외국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를 늘려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 과거부터 정착한 외국인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라-토픽5: 불법체류자의 자진신고기간을 확대하고 혜택을 높여 외국인 근로자가 스스로 한국 생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 토픽6: 한국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토픽6은 영화, ‘민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와 ‘완득이’ 속에 투영된 사건 속에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피부색과 외모 등 외형에 대한 편견과 차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 등이다.

가-토픽6: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 말을 걸 때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바라본다. 또한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에 일하러 온 노동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 <중략>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나-토픽6: 그 나라의 언어, 문화를 모르는 무지랑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되었다. <하락>

다-토픽6: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 편이다. <중략> 아직도 주변을 보면 외국인들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중략> 우리 가족 중에 필리핀분이 2분이 계신다. 설 때 가서 대화를 하는데 그 분들도 우리랑 다르지 않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비슷하다. 다른 건 언어밖에 없다.

라-토픽6: 경찰들은 찬드라에게 한국말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찬드라를 정신병자 취급한다. <하락>

이상의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미디어를 통한 인식 개선과 접촉(만남)과 소통의 기회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가-토픽6: 현재 매체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한국사회에 만연한 편견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토픽6: 사회적 약자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생각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지낸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같이 지낼 방법이 없다는 이유도 꽤 있을 거 같다. 아마 자주 마주칠 기회만 많이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과 생각으로 건강한 다문화사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 토픽7: 다문화가정

토픽7은 영화, ‘덕구’ 속의 인물과 사건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향한 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인종차별적 행동과 언어적 폭력 등이다.

가-토픽7: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도둑질을 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을 때 돈을 가지고 도망간 엄마와 같다고 인종차별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아이를 대

하는 모습이 영화 속에 나타난다. <중략>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문제들을 바라본다.

라-토픽7: 한국사람은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간다. 성인들도 무의식적으로 쳐다보는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더 하다. 못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미디어의 역할 강조, 공교육에서의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정기적인 다문화축제를 통한 다문화 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가-토픽7: 미디어나 매체에서도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혐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혐오를 해소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토픽7: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아이들 교육은 물론이고 학부모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는 점차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데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이들 또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바라볼 것이다. 정기적으로 학부모 필수교육을 이행하고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의 특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 토픽8: 북한이탈주민

토픽8은 영화, ‘파이터’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속의 인물과 사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현실적 문제-취업, 안전, 생활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일상적 편견과 차별적 시선,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이나 능력 등이 고려되지 않는 획일적인 정착 프로그램 등이다.

가-토픽8: 주인공에게 집을 구해준 부동산 사장의 행동에서 느낄 수 있듯이 탈북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여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용

하려고 하였다. <중략> 한국으로 탈북을 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경비, 청소 등과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

라-토픽8: 주인공은 한국의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당한다.

마-토픽8: 영화 <파이터> 중 복싱장에서 남자가 주인공에게 신조어를 섞어 말해 주인공이 알아듣지 못하자 '한국말이 아직 어렵죠?'라는 말을 했을 때 이해가 갔다. 남한말이라고 했으면 주인공이 그나마 덜 황당했을 것이다. 이 장면을 보고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다고 느꼈다. <중략> 필자 본인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덕 과목에서만 잠시 탈북민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배우고 그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정착하며 살면서 어떠한 고충을 겪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배우지 못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정착프로그램의 다양화-교육 수준과 나이, 성별 등에 따른 직업교육, 금융교육, 범죄교육 등, 한국인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가-토픽8: <중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더욱 심하다. 이러한 것은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역사적 사실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생활 주변에서 다문화가족(다른 나라 사람)을 접하기 쉬운 편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을 접하기는 쉽지 않다. <중략> 다문화축제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에 대해서도 한국사람들이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좋을 거 같다.

라-토픽8: 북한의 체제에 지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온다면 한국의 적응문제와 돈벌이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이다. 물론 하나원 등에서 어느 정도는 배우는 것이 있겠지만 사회에 나와서의 추가적인 교육과 도움이 더 필요하다.

마-토픽8: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노출이다. <중략> 탈북민에게 한국의 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듣게 하여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경찰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문학을 활용한 다문화사회교육에서 각 문학 속에 구현된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A대학교, ‘다문화사회와 문학’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운영하였으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5명이었다. 그리고 수업에 활용한 다문화문학은 시, 소설, 영상문학 등 3개의 문학 장르에서 총 30편이었으며, 수업의 최종 결과물은 다문화담론 8개의 탐구 주제를 다룬 분석에세이, 총 33편이었다. 마지막으로 분석에세이 33편은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귀납적으로 심층 분석하였고, 주제별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 및 시사점⁴⁶⁾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다문화사회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다문화문학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3.2.2.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분석적 에세이 쓰기를 통해 한국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다문화사회의 지향성,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태도 등 분석적이고 비평적인 시각을 구체화 하였다.

가-사후설문: ‘다문화’에 해당하는 대상이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다른 대상들보다 더더욱 뒤쳐져있고, 그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 또한 다른 대상들보다 ‘다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하략>

다-사후설문: 가장 큰 문제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외국인을 약간 같은 범주에 안 넣고 배척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후진국 같은 나라에서 오면 배척에 이어 차별까지 하니 다문화사회가 더 발전하려면 이러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사후설문: 현재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이지만 제도나 법, 사람들의 인식은 다문화사회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46) 분석에세이 결과와 함께 사후 설문조사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들어와 살기 위해 더 적절한 제도나 법을 만들어야 하고, <하락>

둘째, 다문화문학의 내러티브⁴⁷⁾ 형식과 내용은 학습자의 다문화담론 이해와 수용에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 즉 내러티브의 매체적 특성과 그 내용이 학습자 이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각 문학의 내러티브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고 탐구한다. 즉 학습자의 다문화담론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문학이 담고 있는 내러티브의 진행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 설문 조사 결과⁴⁸⁾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문학의 내러티브 진행 방식에 따른 문학적 체험(경험)을 통해 등장인물과 사건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생각을 구체화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가-사후설문: 시, 다양한 인물들의 등장과 다양한 소재를 통해 다문화사회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둘러싸인 다양한 주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어 가장 도움이 된 것 같다.

나-사후질문: 소설, 그 사회에 있는 듯한 느낌과 심리요소를 잘 살려서 보는 입장에서 많은 공감과 이해를 시켜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사후질문: 영상문학, 영상이라는 매체와 함께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도 잘되고 재미있었다.

라-사후질문: 영상문학, 아무래도 영상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높았고 다양한 소리로도 다문화사회를 이해할 수 있었다. 다른 글 문학은 상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영상문학은 그 상황을 단편적으로 나타내주어서 쉬웠다.

마-사후질문: 영상문학, 영상 미디어는 접하기도 쉽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영화 덕구와 파이터를 보고 다문화가정과 탈북민의 한국사회에 서의 삶이 정말 실제처럼 잘 느껴졌기 때문이다.

47) 본 연구에서는 권혁준(2017), 박인기(2020)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다.

48) 다문화문학 중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도움을 준 문학 장르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학습자마다 선호하는 다문화문학 장르 및 문학 작품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문학을 활용한 다문화사회교육은 학습자의 문학경험과 문학능력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문화문학을 활용할 때에는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즉 학습자의 교수·학습의 과정이 다문화사회교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또한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문학을 활용한 다문화사회교육에서 학습자의 개별적 이해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교육의 실재를 통해 다문화문학의 교육적 기능과 활용에서 학습자의 문학경험이 학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다문화문학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분석 대상 및 결과물의 수가 적다는 점, 구체적인 문학 작품의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를 면밀히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강진구·이기성(2018). 한국문학의 다문화담론에 대한 메타분석, <우리문학연구> 59, 7~28쪽.
- 권혁준(2017). 다문화사회와 문학교육의 과제: 초등문학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2, 7~35쪽.
- 김성숙(2015). 한국어교육에서 다문화문학 교육 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선혜(2022).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화주의 문학교육 방안 연구: 『82년생 김지영』을 중심으로, <배달말> 71, 259~304쪽.
- 남지현(2016). 대화주의에 기반한 문학토의 수업의 구조화 연구: 비계 설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인기(2014). 글쓰기의 미래적 가치: 글쓰기의 미래적 효능과 글쓰기 교육의 양태

- (mode), <작문연구> 20, 9~36쪽.
- 박인기(2020). 서사(Narrative)의 교육적 작용,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1, 7~34쪽.
- 송현호(2010). 다문화사회의 서사 유형과 서사 전략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44, 171~200쪽.
- 송희복(2010). 한국 다문화 소설의 세 가지 인물 유형 연구, <배달달> 47, 309~334쪽.
- 이인화(2013). 문학토론에서 소설 해석의 양상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94, 249~280쪽.
- 양승주(2010). 『용의 날개』: 다문화 문학과 전형의 극복, <영미문화> 10-3, 177~198쪽.
- 윤여탁(2010). 다문화사회: 한국문학과 대중문화의 대응, <국어교육연구> 26, 3~24쪽.
- 임경순(2011). 다문화 시대 소설(문학)교육의 한 방향, <문학교육> 36, 387~420쪽.
- 전영주(2018). 다문화시대의 문학담론과 형상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학적 시도들, <동악어문학> 75, 227~248쪽.
- 정우향(2011).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외국어 읽기교육』, 박이정.
- 정혜승(2012). 대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상위담화 범주 구성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3, 459~485쪽.
- 최미숙(2006). 대화 중심의 현대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26, 227~252쪽.
- Cai, Mingshui(2002). *Multicultural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reflections on critical issues*, Greenwood Press, USA.
- Yin, Robert K.(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신경식·서아영·송민재(2016) 역, 『사례연구방법』, 한경사.

필자 소개

성 명 박정미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글로벌한국학전공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전자우편 jmpark4601@naver.com

Abstract

Understanding Multicultural Discourse Using Korean Multicultural Literature and the Practice of Education

Park, jung-mi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plored how learners understand and accept multicultural discourse in multicultural social education using multicultural literature. For this, the practice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Literature' class was shown, and was analyzed the content of analysis essays that the final results of students. A total of 30 pieces of multicultural literature were used in this study, including poetry, novels, and film literature, and a total of 33 pieces of analysis essays by 5 students written on 8 topics of Korean multicultural discourse. The analysis essay was inductively analyzed in the multiple case study method,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presented for each topic.

[Key words] Multicultural Literature, Multicultural Discourse, the Practice of Education, Analytical Essay, Multiple Case Study

투고일 2023. 07. 05 / 심사일 2023. 07. 15 / 게재확정일 2023. 07. 18